

인문학의 르네상스를 위하여

정 혜 숙 /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지금까지 대학은 문자 그대로 교육부의 종속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제일주의의 천박한 하청업체로 전락한 느낌이다. 온 나라를 산업사회, 과학기술사회화 하려는 시책들은 자연히 인문학의 소외현상을 불러일으켰고, 인문학의 위기는 곧 기존의 인문대학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는 단계에 이른 듯하다.

1. 들어가는 말

1998년은 무겁고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열리는 듯하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경제단어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다. 부도, 불황, 고물가, 소비자파산, 고용불안,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의 말들이 심각한 우리의 상황이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각종 범죄, 폭력 그리고 자살사건 등이 비극적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또

다시 저 어둠과 비극의 세계를 향해 서서히 닳을 내리고 있지 않은가. 온 나라가 침몰에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 바람 속에 각 분야에서 고통과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무한경쟁시대와 경제제일주의라는 개혁의 휘몰이 바람 속에 많은 변화와 변모를 거듭하게 되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부의 정책에 종속된 대학은 서열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교육부의 당근과 채찍에 발맞추어

경쟁적으로 고부가가치 전략과 상품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들도 자구책으로서 경제논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할당하여 대기업에 용역을 의뢰하여 대학 운영 진단을 받게 하였으나,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대학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의 관리자와 그 구성원이 아닐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 양적 팽창만을 추구한 나머지 건물 신축, 병원 설립, 캠퍼스 이전, 시설 투자 등 무리한 물물리기로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학을 개인 수익사업체로 인식해 외자도입까지 해가며 사업확장을 한 재단의 탓도 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질보다는 물량에 집착하는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 속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은 문자 그대로 교육부의 종속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경제제일주의의 천박한 하청업체로 전락한 느낌이다. 온 나라를 산업사회, 과학기술사회화 하려는 이러한 시책은 자연히 인문학의 소외 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인문학의 위기는 곧 기존의 인문대학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까지 논의되는 단계에 이른 듯하다. 인문학은 대학의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며, 비판적이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고, 내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의 성숙도에 기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문학의 분야인 역사, 철학, 문학 등이 군사정권도 아닌 문민정부에서 홀대받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 인문학의 현주소

산업사회라 통칭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은 자본가와 생산품이 주도하는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응용과학 분야와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경쟁적 마케팅 분야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이 민족이 살아 남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독재정권의 총칼 아래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 공업국을 모델로 하여 오로지 발걸음만을 재촉하며 근대화를 이룩한 한국인의 저력은 세계가 놀랄 만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불어닥친 천민자본주의 논리에 밀려난 인문학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가치창조와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문화가 상품가치가 없음으로 인해 인문대는 자연히 홀대받고 대학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자연히 종합대학의 구색 맞추기로 존재할 뿐 이공계와 자연계의 위세에 눌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사회가 실용 학문 육성에 몰두하고 시장경제논리가 인문학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문학의 위상 정립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기의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 대학의 인문과학연구소 주최로 심포지엄과 세미나가 잇달아 열리고 있으며, 전국 21개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협의회는 지난 1996년 11월 제주대에서 '인문학 제주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이성의 회복과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목표로 하며 학문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이 대학에서 존폐의 갈림길에서 있음을 인식하고, 대학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인문학적인 기반 위

에서 대학교육의 모든 제도와 과정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남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인문학 심포지엄에서 '휴머니즘의 회복과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국내 학자들의 발표 토론이 있었는데, 철학, 역사, 문학, 전통문화와 민중의 문화적 상상력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인문학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과 인문학의 정체성 회복에 관하여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지난해 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14개 대학의 인문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 심포지엄 '현대사회의 인문학-위기와 전망'에서 학자들은 자신들의 식민사관과 서구학문에 대한 종속적인 시너현상과 국수주의에 의한 학문적 패쇄주의 등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인문학자들의 자아비판적인 강도 높은 질책의 목소리들이 있었다고 한다. 위의 문제제기와 반성적 성찰 뒤에는 그에 대한 자구책의 마련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과 인력의 양성정책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다른 학문과 아울러 인문대학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어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국의 영어 패권주의

문민정부가 어느날 느닷없이 발표한 '세계화'란 말은 국민들에게 우선 적잖은 혼란과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곧 이어 그것이 '미국화'라는 말의 동의어로 여겨지게 되었다. 온 국민이 영어시험을 쳐서 곧 미국의 51번째 주의 시민이나 되려는 것처럼 영어과의 열풍이 불게 되었다. 코흘리개부터 40,

50대의 중견간부에 이르기까지 영어 열풍은 대단하다. 방학이면 영어연수를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루고 학생들은 학교를 휴학하면서까지 영어연수를 떠난다. 그러나 다른 과목은 어떤가. 고등학교에서는 감사에 대비해 이중장부를 만들고, 제2외국어 시간에 영어나 수학으로 대치하거나 자율학습을 시킨다. 어쩌다가 교사가 자신의 전공에 대한 열정에 못 이겨 수업이라도 할라치면 교장으로부터 엄한 질책을 받는다고 한다. 대학수능시험에 제2외국어가 포함되지 않는 한, 이러한 편법 운영은 계속될 것이다. 왜 제2외국어 수능시험에 빠지게 되고 제2외국어 교사들이 전공과는 상관없는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지 모를 일이다. 찬밥신세를 견디다 못해 아예 영어교사로 전공을 바꾸기도 한다. 4년 동안 공부하고도 영어로 자기소개도 제대로 못하는 지금의 대학교육에서 타과 출신의 교사들을 끌어다가 몇 주간 강습을 받게 한 다음 영어교사로 버젓이 행세하게 만든다. 언어란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그 모든 것의 총체적 표현인데 아마 한국의 교사들은 만능 조리기인가 보다.

프랑스에서는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깊은 학문적 소양과 교양을 쌓고 그것을 검증받기 위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된다. 대부분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의 교사 자격시험 준비과정에 등록하여 1년 동안 노련한 교수들에게 엄격한 강의와 시험, 리포트 제출 등을 거쳐 자격 시험에 임하게 된다. 합격 후 1년 동안 예비교사로서 실습을 하게 되며 그 기간이 지나야 전국구로 배정받는다. 그들은 이렇게 엄정하고 까다로운 통과의를 밟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인 카페에스(C.A.P.E.S)나 그보다 더 상위급

인 아그레가시옹(AGREGATION)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이상으로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긴다. 이렇게 실력의 평균화의 시험대를 거친 교사들은 그들 스스로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학술지에 훌륭한 논문을 게재하며, 활발한 학회활동과 저술 활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영어바람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봉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어 너도나도 한국행을 원하며 또 외국인을 초대하면 한국인이 밥값, 차값, 술값, 그밖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 외국인의 천국 썸으로 꼽히게 되었다. 백화점과 대기업 사회교육원이 개설한 문화강좌에는 주부생활영어가 단골메뉴이며, 동네 영어회화 학원마다 무자격 외국인들이 속속 밀려들고, 흔히 백화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영어로 쇼핑하는 것을 가르치는 극성과 학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는다. 한때 모 대학의 외국어학당에서는 어린이 영어강좌에 등록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교육계의 어떤 인사는 영어의 중요성을 역설한 나머지 교원 임용시험 때 토익점수를 가산하자는 망발을 하기도 한다. 오히려 우리말을 정확히 아름답게 구사하는 예비교사에게 가산점을 주자고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많은 기업체에서는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부서의 신입사원 입사시험이나 승진시험을 토익이나 토플 점수로 선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세일즈맨화 하자는 정책

인가. 대학생은 어떤가. 수능점수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학과에 진학한 학생은 대학과 학과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에 따른 좌절감과 부적응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방황하고 있다.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마지못해 강의실에 온 학생은 뒷자리에 앉아 토익 문제집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어떤 교수는 대학원 전형 때 제2외국어를 없애자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 비난을 받은 일이 있다. 그 교수는 중국에서도 학술발표를 할 때 영어가 통한다는 논리다. 편입학이나 대학원 전형 때 모든 학과의 지원자가 전공에 상관없이 영어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아까운 학생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시험 때면 학우들과 함께 예상문제의 모범답안을 복사해 돌려 외운 다음 한 시간 대충 쓰고나면 학점은 자동으로 이수되는 대학 풍토에서 학생들에게 세계관이나 인생관, 인문학적인 교양 운운하는 것은 어찌면 허울좋은 담론으로 들릴지 모른다. 학생들에게는 오로지 영어, 영어 그리고 영어가 있을 뿐이다.

문민정부의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준비와 전략 부족 그리고 그에 편승한 언론의 무분별한 상업주의가 엄청난 교육적 낭비를 초래하였다. 세련된 언어 구사력과 함께 품위와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판매원이라면 얼마나 좋으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훌륭한 상사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판매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4. 인문대학의 과제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외국어에 대한 전문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뜻이다. 미래사회는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존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대학생이 다시 자기전공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아울러 민주시민으로서 비판적 안목과 진취적인 사고를 기르며, 사회와 기업에서는 이러한 덕목을 갖춘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우대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어 열풍 덕분에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는 인기학과로서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독일어와 불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 계열의 학과들은 사범대학의 유사계열학과와 통합문제가 대두되기도 하고, 수도권 외의 어떤 대학에서는 학부제를 실시한 결과, 영문과로만 학생들이 몰리자 다른 외국어문학과 교수들에게 몇 년도까지 학생모집이 안 되면 폐과하겠다고 학과와 교수들의 시한부 운명을 예고하였다고 한다. 대학도 백작집처럼 좌판을 늘어놓고 시장논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학부제는 과거에 실패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것도 문제려니와 적어도 한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이라면 지금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영어영문학과 중심으로 학생이 몰릴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또 다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오늘날 외국어문학과를 포함하여 인문대학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원인은 문민정부의 지나친 실용과 경쟁 위주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인문학이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데도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확산되어 대학 내에서도 자구책

으로서 구조조정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구어내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외국어대학 또는 외국학대학, 국제대학원 등을 설립하여 외국학 연구와 교육의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는 대학으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로 이끌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인문대학 또한 국제화·세계화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적 과제와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1세기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그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①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교육

언어와 함께 습득해야 할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예법 그리고 풍습, 종교, 문화에 따른 특수한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 외국어문학과 교육과정 개편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각별히 외국어와 그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된 지금의 현실에서 기존의 언어학과 문학 강의로 이분된 교육과정을 실용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개편한다. 회화시간을 대폭 늘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 학기 동안 강좌를 개설하고 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한다. 각과 공통으로 세분화되거나 중복되어 있는 교과목을 통합하고, 학과간 공동 이수

과목을 개설하며, 학제간 공동강의 또는 교환강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는 각 단과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 지나치게 구별짓는 학문간 벽을 허물고, 학문의 인접성을 인정하며, 각과에서 필요로 하는 강의를 모든 학과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문간 교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지역학 개설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외국문화의 이해가 필수조건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문학부에 언어학과 문학 분야 이외에 해당국의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 있도록 미국학, 프랑스학, 독일학, 중국학, 일본학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학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해당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갖게 한다.

④ 문화와 예술 강좌 신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규정되는 바, 문화와 예술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갖게 한다. 몇몇 대학이 문화와 예술 강좌를 신설하여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⑤ 다양한 외국어 학습의 기회와 확대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습득의 기회를 마련하여 국제간 이해와 교류를 증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원어민 강사의 충원, 외국 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환, 연극·영화 등 문화행사, 국·내외 대학과의 자매결연, 현지연수, 어학실습실 시설의 현대화 등을 통해 쉽게 외국어와 친숙해지도록 유도하며, 학기중 일정기간 외국어를 이수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 외국어 능력인증서를 수여하거나 이를 졸업자격증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⑥ 독서목록 작성과 영상자료 확보

전공과 지역학 이외에도 문학적 감수성과 예술적 심미안을 심화시키고 자신의 인문학적 교양을 위해 대학인으로서 재학 중에 읽어야 할 도서목록을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그 책에 나타난 주제에 대하여 발표 토론하게 한다. 또한 영상시대에 걸맞게 각종 비디오, 카세트, 필름 등을 구비하여 관람하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마련한다.

5. 맺음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국제화·세계화에 도전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책자나 교육 입안자들은 교육의 개혁을 통해서 21세기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 같다. 대학도 시대적 과제에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문학의 모든 관련학과는 장기적인 종합정책을 세우고 자기변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대폭적인 손질과 정부의 간섭 없는 지원 확대 그리고 대학의 자율권 등으로 우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IMF 체제를 핑계삼아 대학에 족쇄를 채우고 긴축정책에만 몰두한 나머지 교육문제를 소홀히해서는 아니되며 어려운 때일수록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교육만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일 것이다. 구한말 우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민족의 선각자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력양성을 위한 민족교육에 힘을 쏟지 않았던가. 새

대통령은 12월의 선거공약에서 약속했듯이 문화와 경제가 국가발전의 두 수레바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세기로서 문화상품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신종 거대산업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자동차 백만 대 수출과 맞먹고, 영국의 음반산업은 전 철강산업을 합한 것보다 비중이 더 크며, 종사자만 해도 12만 명에 이르고 연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을 벌어들인다고 한다. 영국 정부에서는 음악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의 진두지휘 아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와 청소년 음악교육에 대한 투자방안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궁정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했으며, 17세기부터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비롯하여 언어, 문학, 무용, 미술, 음악, 건축 등 각 문화 분야별로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오늘날 문화대국으로서의 권위를 누리고 있다.

지구촌 시대로 명명되는 이 시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다. 축적된 문화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문화정책으로 이상적인 정치·경제의 실현과 실용학문의 육성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에너지이다. 문화적 토양과 감수성 아래에서 우리 사회는 성숙하며 비로소 세계화의 통과의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닐까. 최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첨단산업 관련분야에서 인문학 계열 박사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새 봄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함께 얼음장 밑에서 재생의 희망을 품고 춥고 긴 겨울을 견뎌 낸 인문학의 새로운 르네상스와 그 찬란한 개화기의 시대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

정혜숙/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니스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Tristan et Iseut에 나타난 신화적 이미지", "누보로망 연구", "누보로망에 나타난 도시의 이미지"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